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봉사

(금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2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이상을 가지고, 계시에 따라서, 몸 안에서 봉사함

성경: 행 9:1-6, 15, 20-22, 22:6-10, 14-15, 26:16, 18-19, 갈 1:13-14, 롬 12:4-5, 엡 2:21-22

I.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봉사는 반드시 이상이 있어야 하고 계시를 따라야 한다 — 행 9:1-6, 15, 20-22, 22:6-10, 14-15, 26:16, 18-19.

A.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하늘에서 빛이 바울에게 비추어지기 전에, 그가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선동에 따른 것이었다 — 행 9:1, 갈 1:13-14.

1. 우리도 바울의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의 움직임을 훼손하도록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요 16:2.
2.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큰 빛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전통과 종교에 대한 지식과 열성은 있었지만, 이상이나 계시는 없었다 — 갈 1:13-14.
3. 바울은 주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주님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서 “주님, 누구십니까?”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주님의 이상을 받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서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이다 — 행 22:8, 10.
4.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전의 봉사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고 자신을 신약의 봉사 안으로 이끄는 이상을 받기 시작했다.
5.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하늘에 속한 이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바울이 이 이상을 보았을 때 구약의 것들은 종결되었고, 그는 신약의 길을 취하기 시작했다 — 행 26:18-19.

B.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봉사는 계시를 따른 것일 수도 있고, 천연적인 것일 수도 있다 — 갈 2:1-2, 엡 1:17, 3:3, 5.

1. 계시를 따른 봉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에 의해 빛 비춤을 받는 것,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는 것, 영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담을 받는 것을 포함한다 — 행 26:16, 18-19, 22:14-15.
2. 천연적인 봉사는 우리의 발상이나 관점이나 전통이나 규정에 따른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는 것에서 비롯될 수도 있으며, 단지 어떤 상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자주 시작된다 — 고전 2:14.
3. 우리는 내적인 계시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외적인 행동들을 갖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우리의 내적인 계시가 우리의 외적인 행동들을 통제해야 한다 — 갈 1:13-14, 2:1-2.

C. 이상과 계시가 봉사의 길과 생명이다 — 행 26:19, 엡 3:3, 5, 9.

1. 봉사의 길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상이 필요하고, 봉사의 생명을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이상에서부터 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은 계시에서부터 온다.
2. 바울은 그의 외적인 길과 내적인 생명을 둘 다 바꾸는 것이 필요했다. 그의 옛 길은 받아들여질 수 없었고 그의 옛 생명은 종결되어야 했다 — 빌 3:4-8.

3. 바울이 전파하는 길은 하늘에 속한 이상에서 온 것이었고, 바울이 전파한 내용은 계시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의 길은 하늘에 속하였고, 그의 내용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 행 22:14-15, 26:16, 18-19.

II.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며, 우리는 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 롬 12:4-5, 고전 12:14-27.

- A. 주님을 섬기는 문제에 올 때, 우리는 우리에게 몸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가 몸 없이는 섬길 수 없고 몸 밖에서는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롬 12:4-5, 빌 1:19.
- B.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가 몸 안에 있는 생활이며, 그리스도인의 봉사 전체가 몸 안에서 수행되는 봉사이다 — 고전 12:12-13.
- C. 신약에서 봉사는 로마서 12장 이전까지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봉사의 문제가 계시된다. 여기서 봉사는 몸의 문제이자 몸 안에 있는 문제로 제시된다 — 롬 12:4-11.
- D.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강조점은 봉사를 위해 안배된 위치에 있고, 몸 안에서 봉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강조점은 봉사에서의 조율에 있다.
- E. 신약에 따르면 믿는 이들은 서로에게 지체이며 한 몸 안에서 조율된다 — 롬 12:4-5, 고전 12:12, 14, 엡 5:30.
 1. 그리스도의 몸을 아는 것은 우리가 다만 지체들이고 다른 이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2. 한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단위가 아니다. 그는 다만 몸의 한 지체이자 한 부분이다.
 3.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한 지체의 위치에서 다른 이들과의 조율 가운데 봉사해야 한다 — 고전 12:18.
- F. 우리가 몸을 보았다면 더 이상 분열적이지 않을 것이고, 개인주의적이거나 독립적이지 않을 것이며, 조금의 불평이나 원망이나 비난 없이 사랑과 용서와 동정과 관용과 오래 참음으로 기꺼이 섞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몸의 생활이 있을 때, 우리의 봉사에 참된 충격력이 있을 것이다 — 엡 1:17-23, 5:23, 30.

III.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 엡 2:21-22, 요 2:14-17, 14:2, 학 1:2-11.

- A. 하나님은 구원받고 온전하게 된 믿는 이들이 그분의 거처로서 함께 조율되고 건축되기를 원하신다 — 엡 2:21-22.
 1. 사람들을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고 믿는 이들을 인도하여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것은 다만 절차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분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다.
 2. 하나님의 건축된 집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표현하며,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그분의 뜻을 성취해 드린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 있다 — 요 14:2.
 3. 하나님은 복음이 뜨겁게 전파되고, 또한 믿는 이들이 영성을 추구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그분의 집,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기 위해서이다.
- B.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관심해야 한다 — 요 2:14-17, 고후 11:28.
 1.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의 일의 중심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에 삼켜지셨다 — 요 2:17.

2. 사도들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수고하였다 — 고후 11:28.
3. 대부분의 믿는 이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들을 돌보고, 그들 자신을 중심과 출발점으로 여긴다 — 빌 2:20-21.
 - a. 물질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 둘 다와 관련해서 사람은 이기적이며,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을 고려하기보다는 언제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를 원한다 — 마 6:8-13, 19-34.
 - b.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갈망에 부합하고 그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라는 덫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하나님의 필요를 관심해야 한다 — 학 1:2-11.
 - (1)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집의 건축을 관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게 우리의 이기심에서 구출되기를 갈망하신다 — 빌 2:21, 학 1:2-11.
 - (2)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반드시 하나님의 집을 관심해야 한다.
4.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그분의 일 이외의 그 어떤 것에도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 엡 2:21-22.
5.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이상을 가지고, 계시에 따라, 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 요 14:2, 딤펴전 3:15.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이상과 계시는 봉사의 길이자 생명임

이제 우리는 특별히 길인 이상과 생명인 계시에 대하여 말하려고 한다. 원래부터 바울의 길은 죄를 짓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었다. 다만 구약에 따라 유대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었을 뿐이다. 하늘에서 빛이 그에게 임하고 난 후에, 구약의 길은 더 이상 가지 말아야 하고 구약의 방법은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그는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길에서 돌아섰다. 과거에 가던 길을 끝까지 가지 않고 중도에서 멈춘 것이다. 그러나 길이 바뀌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적으로도 바뀌어야 했다. 외적인 방법이 바뀌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적인 생명이 바뀌어야 한다. 옛 길을 가지 말아야 하고 옛 방법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옛 생명도 버려야 한다.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밝은 빛을 보았다는 것만 주의한다. 그러나 그때 바울이 안에서 생명의 빛을 얻었다는 것은 주의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것은 말하지만,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그 안에 계시하셨다는 것은 간과한다(16절).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외적인 길이나 방법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적인 생명의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침례를 받을 때 물에 잠겨야 하는지 아니면 몇 방울의 물만 문혀야 하는지를 두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이것은 방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적인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외적인 방법만 바뀌고 내적인 생명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은 중국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약을 달일 때 약은 바꾸지 않고 물만 갈아서 재탕하는 것과 같다. 겉만 바뀌고 속이 바뀌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외적인 길에는 이상이 있어야 하고, 내적인 생명에는 계시가 있어야 한다. 길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생명은 그리스도이다.

전에 주님 안에서 가까이 지내던 한 친구가 나에게 “왜 자네 교회는 사회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

는가? 자네들은 공중에 떠서 살고 있는 것 같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그에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사회의 일에 참견하고 땅의 일에 간섭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하늘에 속한 이상은 언제나 사람을 하늘에 속하게 한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것이므로 땅의 더럽힘을 받지 않아야 한다. 사회의 풍속과 세상의 법칙은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일이지 교회의 일이 아니다. 교회는 땅 위에서 행하지만 땅에 속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길을 가는 것이다. 교회의 생명 또한 하늘에 속한 것이며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반드시 이상도 있어야 하고 계시도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이상에서 비롯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은 계시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람의 것은 가져올 수 없다. 여러분의 과거의 의견도, 중국의 것도 가져올 수 없고, 또한 외국의 것도 가져올 수 없다. 구식의 것도, 신식의 것도 가져올 수 없다. 종교적인 제도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회의 방법, 그리고 자신의 생각 역시 주님을 섬기는 일 안으로 가져올 수 없다. 사울이 가져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구약의 것이었다. 여러분이 가져오는 것은 소크라테스나 공자의 것일 것이므로 사울이 가져온 것보다 더 나을 리가 없다. 사울이 가져온 것들이 쓸모가 없는 옛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이 가져오는 사회와 세상과 사람에게서 난 것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것들이 시대에 부합한 것이든 부합하지 않는 것이든 모두 교회의 섬김 안으로 가져올 수 없다. 하늘에서 온 이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땅에 속한 실행, 땅에 속한 방법들을 멈추게 한다. 이것은 외적인 것이다.

내적인 것을 말하자면, 우리는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사람이 전하는 도(道)는 여러 종류가 있다. 소크라테스가 전한 것도 하나의 도이고, 공자와 맹자가 전한 것도 하나의 도이며, 루소가 전한 것 역시 하나의 도이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것은 사람의 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가 도이시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1, 14절)라고 말한다. 이 말씀, 즉 이 도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도는 죽은 문자나 죽은 교훈 혹은 죽은 주의(主義)가 아니며 죽은 교리도 아니다. 우리가 전하는 도는 살아 계신 예수님, 살아 계신 그리스도, 바로 주님 자신이다. 이 도는 사람이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하거나 성경을 몇 번 통독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 안에 계시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심을 알게 하신다. 바울이 전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가 전한 이 길은 하늘에 속한 이상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가 전한 내용은 계시에서 비롯된 것이다. 길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늘에서 온 것이다. 또한 내용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며 살아 계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몇몇 기독교 단체들은 복음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봐 영화를 보여 주기도 한다. 이런 광고가 나가면 참석하는 사람의 수가 배로 늘어난다. 그들은 언제나 설교가 끝난 후에 영화를 보여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화를 보려면 먼저 설교를 들어야 했다. 결국 사람들은 설교는 듣는 등마는 등 하고, 이미 삼십 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영화를 보여 주지 않느냐면서 여기저기서 불평을 하기 시작한다. 몇몇 사람은 기다리다 못해 가 버리기도 한다. 설교가 끝나고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영화로 쏠려서 설교 내용은 깨끗이 잊어버린다. 나는 개인적으로 형제들에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한다. 이런 방법은 분명히 하늘에서 온 이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살아 계신 주님 자신이다. 우리가 전하는 방법도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이다. 몇몇 기독교 단체들은 영화를 보여 주는 식의 세상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만, 우리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다.

최근에 형제자매들이 자주 팀을 형성하여 곳곳을 다니며 복을 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모두들 매우 열성적이다. 그러나 내 안에는 한 가지 의문이 있다. 이렇게 복을 치는 것이 하늘에서 온 이상인가? 그것이 하늘에 속한 이상이 비추는 빛을 통과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복을 쳐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이 하늘에 속한 방법인가, 아니면 땅에 속한 방법인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오는 것이 하늘의 능력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복소리를 들었기 때문인가? 어떤 형제들은 오순절날에도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였으니(행 2:2) 복을 치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 두 소리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하겠다. 하나는 하늘에서 온 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만든 소리이다. 하나는 하늘에서 온 것이고 하나는 땅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복을 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팀을 형성하여 복음을 전하는 실행은 1948년에 상하이와 난징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나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우리의 길이 하늘에 속한 본질에 부합하느냐이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복음 전과 팀을 반대하라는 뜻이 아니다. 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이상과 계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기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 방법과 사람의 방법과 사회의 방법 심지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방법이나 현대적인 방법도 가져올 수 없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방법도 가져올 수 없다.

그러나 외적인 길만으로는 부족하고 내적인 생명도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길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적인 생명도 전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례를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신다. 하늘에서 온 이상과 계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주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이상이 있어야 함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모두가 이상이 있어야 한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모두에게 이상이 있었음을 본다. 어린양을 드린 아벨에게는 이상과 계시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형 가인이 땅에서 난 소산물을 제물로 드린 것은 이상과 계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가인을 변호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신 것은 너무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형과 동생이 다 제물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동생의 것만 기쁘게 받으시고 형의 것은 받지 않으셨는가? 나 또한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점차 나는 하늘에서 나온 제물이고, 하나는 자신에게서 나온 제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벨이 바친 희생 제물은 이상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 주신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창 4:4, 히 11:4).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것은 마치 주인이 지시한 적이 없는 데 침대를 밖으로 옮겨 놓은 하인과 같다. 이런 하인을 고용하려는 주인은 없다.

노아를 보자. 노아는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고 일어나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계시와 이상을 받아서 방주를 지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창 6:13-22).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가 갈대아의 우르를 떠난 것도 그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이상을 주셨기 때문이다(창 12:1-4).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나온 것 또한 그가 자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하겠다.”(출 3:10)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 후에 하나님은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어린양을 예비해야 하고, 어떻게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하며, 어떻게 고기와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다.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발에 신을 신고서 나갈 것이며(출 12:1-14),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재촉하여 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1:1-8, 14:1-31).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상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끈 후에, 모세는 성막과 제단과 언약궤와 금등잔대 등을 만들었는데, 이것들은 자신의 총명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사십 일 동안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막에 대한 하늘에 속한 청사진과 제사장 체계의 일을 계시하셨고, 모세는 그분께서 지시하신 것에 따라 그것들을 만들고 세웠다. 이것이 계시를 따라 섬기는 것이다(출 24:12, 17-18, 25:1-31:17, 35:1-40:38).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의 뒤를 이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수 1:2, 6)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그 뒤에 나오는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두 이상을 본 신언자들이다. 이상을 보지 않은 신언자가 없었고, 계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이도 없었다.

구약이 그러했듯이 신약은 더욱 그러하다. 복음서에서 주 예수님은 삼 년 반 동안 제자들을 인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상과 계시를 보여 주셨고, 하늘에 속한 관점을 갖게 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실재의 영이 되심으로 제자들을 모든 실재 안으로 이끄셨다(요 16:13).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이상과 계시로 가득하다(고후 12:1, 엡 3:3-5).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더욱 그러하다. ‘계시’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휘장을 열어서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보여 주는 것이다. 주님은 많은 이상과 표징들을 통해 요한에게 크고 중요한 계시들을 보여 주셨고, 이것들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되었다. 따라서 신약은 복음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과 계시들로 가득하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상과 계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주님을 섬기는 이의 이상·사역·인도, 16-23쪽)*